

# 禁書와 焚書

특정한 책의 저술과 출판, 배포와 독서를 금하는 이른바 '금서(禁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있어왔다. 정치적 저항이나 종교적 이단, 혹은 윤리적 부덕(不德) 등 제각각의 이유에 따라 그 존재를 거부당한 금서는, 지배문화의 검열체계에 침투하게 맞서며 당대의 불운과 희생을 후대의 평판과 영광으로 보상받아왔다. 물론 모든 금서가, 단순히 금서가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후세의 명예를 보장받은 것은 아니다. 다만 한가지, 오늘날 명저나 고전으로 평가받는 책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 출생부터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상범씨가 그의 《금서를 통해 본 근대사상사》(정음문고, 1976) 머리말에서 밝힌 대로 "오늘날 명저나 고전으로 꼽히는 선각자의 저작은 거의 대부분 금서의 낙인이 찍혔던 책"이다.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해 작성된 광범한 금서목록이나 혁명기 프랑스의 '바스티유의 금서' 같은 것이 그 좋은 보기가 된다.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 그로티우스, 홉스, 스피노자 등의 술한 저작들이 기독교 교회의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려 오랜 기간 금서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백과전서》(百科全書)를 비롯한 계몽철학의 걸출한 명저들도 "태어나려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가두는 곳"으로서 "전통적인 문화를 위협에 빠뜨리는 사람들과 정신적 안정을 해치는 인쇄물을 세상과 격리시키는"(주명철, 《바스티유의 금서》, 문학과지성사, 1990) 바스티유 감옥의 용벽 속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

어떤 책을 금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는, 금서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이른바 '분서(焚書)'로서, 서양에서는 기원전 5세

**'금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있었다. 오늘날에 명저나 고전 대열에 드는 책은 거개가 처음엔 금서로 낙인찍혔다. 그렇다고 모든 금서가 다 후대에 고전이 된다는 말은 아니다.**

기경에 벌써 분서의 사례가 보인다.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의 《제신(諸神)에 관하여》란 책이 신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혐의로 아테네에서 소각 처분됐던 것. 그로부터 200여년 뒤의 중국에선 흔히 '갱유(坑儒)'와 '잡을 이루는 진시황의 분서가 벌어져 점복(占卜)이나 농경 등의 실용서를 제외한 춘추전국의 제자백가서가 모조리 불에 타 없어지고 말았다.

20세기 독일에서 나치의 문화선전상 괴벨스에 의해 주도된 분서는 드라마틱하게 연출된 '분서축제'라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다. "나치스의 이른바 국민혁명론은 정치적 수단에 의해서이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이념적 미학적 정화에 의해 이루어졌다. 영원히 낭만주의적인 이 민족에 있어 정치적 지배도 정치 강령에 의해서보다는 관념적이며 낭만적인 운동에 의해 추진되어야만 하였다"고 지적하는 이광주씨는 《나치스의 금서체제와 지식인》(《오늘의 책》 85년 봄호, 한길사)에서 '미학적으로 연출된' 분서축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다.

괴벨스가 언명한 바 '인간을 내부로부터 변화시키기' 위해 나치스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마르크시즘, 사회주의, 자유주의, 국제주의 계열의 모든 인사들을 숙청하였다. 그 반지성적이며 반인간적인 나치스의 '문화'정책의 실상을 우리들은 1933년 5월 10일 수요일 밤의 베를린에서 벌어진 악명 높은 분서축제에서 가장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서축제에서 가장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서축제는 '비독일적 정신에 항거하여'라는 주제를 내걸고 5월 10일 독일의 모든 대학에서 일제히 개막되었다. 이때 프랑크푸르트 대학총장인 교육학자 크리크는 다음과 같은 초청장을 모든 교수들에게 보냈다.

"대학생 자유의용군은 교수단 전원을 5월 10일 수요일 밤 레마베르크에서 행하여지는 마르크스주의적 반도덕적인 서적의 화형에 초대합니다. 학생들은 이 식전의 위대한 상징적 의의에 부응하여 교수단 전원이 임석함을 바랄 수 있다면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동료 교수 여러분에게 그에 많이 참가하시도록 권유하는 바입니다."

베를린대학에서의 화형식 지휘를 맡은 인물은 새로 교수로 임명된 정치교육학자였다. 베를린에서만도 2만을 헤아리는 책이 불살라졌다. 그중에는 마르크스, 카우츠키, 프로이트, 하인리히 만, 레마르크, 에리히 케스트너와 함께 볼테르, 스피노자, 아인슈타인의 저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괴벨스는 격려 연설에서 독일정신은 "대열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참가자들은 "칼 마르크스를 불사르라!"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불사르라!"라고 외치면서 트럭으로 운반되는 책들을 차례차례 화염 속에 던졌다.

# 출판저널

통권 제168호 / 1995년 4월 20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정해욱  
 한 강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지욱

업무부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재)한국출판공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공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천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정신세계사의 신간



# 잃어버린 지평선

제임스 힐튼 장편소설 류시화 옮김

## Shangri-La 상그릴라를 아십니까?

“지평선이 잠깐 열릴 때, 비밀의 낙원으로 들어서라!”

1930년대 초, 네 명의 승객을 실은 비행기 한 대가 의문의 인물에게 납치되어 히말라야의 험준한 산맥 너머로 사라졌다. 비행기가 불시착한 곳은 티베트의 설산 가운데 감춰진 불가사의의 낙원 상그릴라. 상그릴라의 비밀에 접근한 그들은 새로운 운명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데... 신비로운 감동을 안겨주는 뉴에이지(New Age) 문학의 고전—《잃어버린 지평선》.

잠깐 열린 지평선 사이로 영원한 동경의 나라 상그릴라에 들어서 세 남자와 한 여자의 운명—미스터리 기법으로 쓴 이상향 소설의 걸작! 절묘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경이의 책!

\* 상그릴라 : (비밀의 낙원)을 가리키는 말. 제임스 힐튼의 《잃어버린 지평선》에 처음 쓰인 이후 일반 어휘로 사전에까지 실리게 되었다. 지금도 히말라야 곳곳에는 이 상그릴라를 찾기 위해 서성거리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 값 5,500원/서점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대)